

동구 5억 주택 48명 응찰... 8억6천만원 낙찰

광주 경매시장 훈풍... 주거시설 시세 반영 안된 물건 인기 낙찰가율 두달 연속 100% 넘어... 전남은 응찰 줄어 하락

광주지역 단독주택 등의 경매 낙찰가율은 100% 이상 기록하며 열기가 뜨거웠던 반면 전남은 하락세로 반전하며 찬바람이 불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내놓은 최근 내놓은 '2017년 11월 지지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8.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6년 2월 101.2%를 기록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 진행건수도 10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낙찰건수도 201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건을 돌파했다.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2014년 5월 117건을 기록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100건을 넘겼다.

업무·상업시설 역시 20건의 경매가 진

행돼 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4.6%로 전월(56.6%) 대비 크게 상승했다.

토지 경매는 18건이 진행돼 6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106.4%로 전월(85.2%) 보다 뛰었다.

특히 주목된 물건은 광주시 동구 서석동 소재 단독주택으로(건물 167.1㎡, 대지 508.8㎡) 첫 번째 경매에서 48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73.6%인 8억5622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전국 법원 경매 최대 응찰자 물건이다.

이 물건은 1983년 보존 등기된 1층 규모 목조 및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건물로 해당 지역이 2013년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고 도로에 접해있어 주목을 받았다. 대지면적도 넓은 편이라 향후 개발을 목적으로 응찰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지역 경매는 낙찰가율은 크게 떨어지며 냉랭했다.

2개월 연속 100% 이상 평균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뜨거웠던 토지 경매가 11월 들어 낙찰가율 96.6%로 6.4%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평균 응찰자수는 2.5명으로 2015년 1월 2.3명을 기록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소재 밭(田) 1121㎡ 경매에 26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05%인 7578만원에 낙찰돼 11월 전남 지역 최대응찰자 물건이 됐다. 맹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만 여수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 토지라 인기가 높았다.

주거시설은 169건이 진행돼 이중 69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87.3%로 전월대비 7.8%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지던 90%대 낙찰가율이 무너졌다.

주요 물건으로는 광양시 중동 호반리젠

시빌 아파트 81㎡ 경매에 16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남지역 주거시설 최대응찰자 물건이 됐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의 104%인 1억5012만원에 낙찰됐다.

업무·상업시설 경매 역시 97건이 진행돼 16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46.5%로 전월(56.2%) 보다 9.7%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9328건으로 전월 대비 730여건 증가한 가운데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과 같은 75.6%를 기록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거시설의 경우 올해 중순 시세가 많이 상승하면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감정이 물건들이 낙찰되며 낙찰가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도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이 명확한 만큼 당분간 가격지표의 혼돈이 올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은행 예금금리 2% 시대

5대 시중은행 잇따라 인상... 지방은행도 압박

은행 예금금리가 일부 상품에 따라 연 2%대에 진입했다.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인상 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상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연 1.25%→1.50%)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이상 잇따라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가장 먼저 지난 1일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0.30%p 인상했다. 예금 가운데 '워비수퍼주거예금'은 1.8%에서 2.1%로 올랐고, 적금 가운데 '우리엘리트100여행적금'은 최고 4.5%에서 4.7%로 인상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신한S드림 정기예금(60개월 기준)'을 기존 1.45%에서 1.75%로 올리는 등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거치식 예금과 적금금리를 연 0.1~0.3%포인트 인상했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우대 적용 때 최고 1.9%에서 2.2%로 올랐다.

농협은행도 지난 6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농협 일반정기예금과 자유적립형정기예금은 1.00%에서 1.25%로, 주

택약예금은 1.50%에서 1.75%로 올랐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거치식·시장성 예금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렸다. 'KB Smart 폰예금'은 우대 금리 포함 기존 최대 1.8%에서 2.1%로 인상됐다. '차세대종합통장내 정기예금'은 기존 1.65%에서 1.95%로 올랐다.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금리를 인상했거나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부산은행은 정기예금은 최대 0.6%포인트 적금은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5일부터 '플러스다모아예금'의 금리를 1.60%에서 1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1.90%로 올려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에 미리 대비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 상황을 고려해 예·적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는 상품별 인상 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6개월~1년 미만 단기 예·적금에 가입한 후, 추가 인상 시기에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3개월 초단기 상품은 이자가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김대성기자bigkim@

“이주여성 모국방문 광주은행이 응원합니다” 전남 12가구에 항공편·체제비 등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8일 본점 20층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하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다문화가정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환송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환송행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여성 이주자와 그 가족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다문화가정은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12가정 총 52명이다. 광주은행은 왕복항공권과 여행 체제비, 과일 등 선물을 전달했으며 금융박물관에서 다문화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금융교육시간도 가졌다.

특히 다문화가정 중 다자녀가정을 위주로 선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국을 방문



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가족들의 모국 문화체험으로 가족 간의 이해심을 높여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한국으로 시집와서 다른 언어와 문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친정 방문을 통해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사업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 수출현안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여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행)은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중소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부 해외바이

어 개별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수출계약을 추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주)매그나텍 등 수출기업 10개사 인·직원과 수출관련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자율주행 로봇시장을 선도하는 (주)유프랜드(대표 류영근·박순덕)는 이날 협의회에서 "핀란드와 R&D 공동개발을 하고

수출협력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은 수출상담회 덕택"이라며 "중기부 사업 참여를 주변에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 동남아 진출거점인 홍콩과 200만불 수출계약 추진한 의료용 원적외선 온열기 제조업체 (주)명신메디칼(대표 손종기)은 수출 다변화를 요구, KOTRA를 통해 중동 등의 바이어를 찾아주기로 했다.

이외함계 방글라데시에 LPG 저장탱크

설비수출(약 640만불)을 추진하는 (주)영신테크(대표 최철)에 대해서는 참석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신청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행 청장은 "수출상담회를 통한 성공 노후를 함께 공유하고 수출에 중요한 자금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며 "수출확대를 위해 도움을 준 KOTRA와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유익한 상담을 해준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상반기 가계 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지난해 말보다 1.0%p ↑ ...GDP 대비 93.8%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빨랐다. 소득 대비 부담 증가세도 최상위권이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작년 말(92.8%)에 비해 1.0%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

세계 순위도 이 기간 17위→12위→9위→4위→3위로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2위까지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8위로 올라섰다. 2011년에는 79.7%로 13위였는데 2015년 이후로 현재 순위를 유

지하고 있다.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은 물론 영국(87.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 격차가 상당하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10 23 24 31 39	2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08,678,000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6,137,589	51
3 5개 숫자일치	1,268,506	2,257
4 4개 숫자일치	50,000	115,089
5 3개 숫자일치	5,000	1,699,421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